현불 논단

탈진실 시대와 뉴스 소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신념 · 행동 조화 붕괴 시 불안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
현대 사회 뉴스 소비도 적용

알고리즘 기반 인공지능 도입
독자 기호 맞는 기사들 추천
언론사 프레임을 독자가 소비
균형 잡힌 뉴스 이용 의문점

진실 · 거짓 구별 어려운 시대
인지부조화 인한 비합리 우려
편향 않은 바른 뉴스 소비를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 사이에서 조화로운 지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조화가 무너질 때 심리적 불안감을 겪는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1957년 사회심리학자 페스팅거(Festinger)가 발표한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인지부조화'로 인한 인간의 심리적 불안감은 뉴스 소비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뉴스를 만날 때 인간은 심리적 불안감을 겪게 되고, 자칫 무너질지도 모를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뉴스만을 소비하려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인지부조화'라는 불안 심리에 기인한 잘못된 뉴스 소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합리적 정보 편향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

실로 이런 우려는 21세기에 들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혁명에 힘입은 초연결 스마트 미디어 시대는 뉴스와 정보 이용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뉴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고 최신 정보를 거의 무제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입맛에 맞는 읽을거리를 얼마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은 나의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기사를 추천해준다. 하지만 과연 이 변화된 환경이 균형 잡힌 뉴스 이용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뉴스는 속성상 뉴스 생산자의 의도, 즉 특정 프레임이 반영되는 정보제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틀'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프레임(frame)'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회현상이나 인간의 심리 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학술적 용어이기도 하다. 그 중 미디어학에서 사용되는 '뉴스 프레임(news frame)'은 뉴스가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사안이나 사건이라도 언론사의 이념적 경향성이나 편집방침 등에 따라서 뉴스 프레임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뉴스 프레임은 단순히 언론의 보도 경향성 차이를 넘어서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안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결과적으로 언론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들이 설정하는 프레임을 통해 뉴스 이용자의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정치인의 비리 문제를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한 뉴스를 이용한 뉴스 이용자는 그 문제의 원인이 정치집단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게 되지만, 개인의 일화에 초점을 맞춘 뉴스를 접한 이용자는 원인을 정치인 개인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프레임에 따라 상황의 원인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양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개인과 사회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 되었다. 인간은 사실과 진실이 위기에 처했다는 '탈진실(post truth)의 시대'에 예전보다 더 강한 인지부조화를 겪게 될 것이다.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인지부조화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주위에 동일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수록 인간의 비합리적인 경향이 더욱 강화된다는 연구결과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뉴스 이용 패턴이 편향되지 않은 스마트한 뉴스 이용자들이 많아지는 성숙한 사회를 기대한다.

社 說

조계종 재난지원금 기부에 부쳐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조계종 종무행정직 소임자 스님들은 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부하기로 결정한 대상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소임자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전국 본말사에서 소임(주지, 국장 등)을 맡고 있는 스님들로 대략 5000명에 달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은 종교계 단체 중 조계종이 최초다.

이 같은 결정에 정부와 사회는 반기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월 4일 주재한 수석 · 보좌관 회의에서 "종교인들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조계종 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 기사들을 올렸다. 댓글들도 "무교지만 종교를 가진다면 불교", "불교신자 한번 되어볼까" 등 긍정적이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교계는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호감을 얻었고 빅데이터 조사에서도 '긍정' 이미지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기부 결정도 불교가 '국민 종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을 짚어보면 불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때 '국민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가 분명하다. 이제 불교는 코로나19로 희생되고 고통받았던 국민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종교로서의 기본을 지키는 일, 그것이 '국민 종교'로 나아가는 길이다.

코로나 희생자 천도재 필요하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5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 봉축탑 앞에서 코로나19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스님들은 5월 21일까지 매일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사노위의 이번 행보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보듬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무엇보다 종교계가 앞장서서 코로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치유의 법석으로는 첫 사례다.

한편으로는 전 국민이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지난 3개월, 잇따라 보도되는 확진자의 사망소식에도 정작 사회적으로 이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코로나19가 확진자 225명의 목숨을 갑작스레 앗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단지 숫자로만 인식했던 것은 아닐까.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한 극락왕생 발원 기도회'는 코로나 확진자와 희생자를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닌 단순 수치로 환산해 온 우리사회에 '생명의 존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새삼스레 일깨운 일갈인 셈이다.

사회노동위는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조계종 차원에서 '희생자 영가 천도재'를 봉행토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천도재는 산 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법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고독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와 미처 이별을 준비하지 못해 더 슬플 유가족, 코로나 여파로 더 소외된 이웃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사노위 기도회를 계기로 진심어린 추모 분위기가 우리사회 전체에 퍼져나가길 발원한다.

특별기고

생각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권표 스님
일본 교토 고려사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라는 두 단어로 합성된 단어이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약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위험으로 보는데 반해, 나머지 10%만이 위기를 기회로 본다고 한다. 말하자면 성공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10%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영어 단어 'Impossible'을 보자. 이 단어의 의미는 '불가능'이다. 이 단어에 ' ' '를 더하면 'I' mpossible'이 되어 '가능하다'가 된다.

또 다른 영어문장을 살펴보자. 'Opportunity is nowhere'는 '기회는 아무 데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도 보는 시각을 바꿔 보면 다른 문장이 된다. 이 문장에서 'nowhere'를 단어를 나누어 'now here'로 바꾸어 보자. 바로 'Opportunity is now here'가 되어 '지금 바로 기회가 있다'란 뜻으로 바뀌어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Change'도 'g'를 'c'로 바꾸면 'Chance(기회)'로 변한다. 변화도 달리 보면 언제든 기회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생각을 바꾸면 다른 게 보이기 마련이다.

흔히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운명(運命)'을 탓 한다. 그런데 이 운명이란 글자도 앞뒤로 바꾸면 '명운(命運)'이 된다 즉 '운에 명령을 한다'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실패'를 보자. 실패가 정말 끝을 의미하는 걸까? 물론, 실패를 액면 그대로 봤을 때에는 성공의 반대말이다.

하지만 다각적인 사고로 살펴보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남았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얻은 것 하나 없이 손해만 봤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실패는 결코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살다보면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불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한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과 겸양으로 성실히 살아가면서 참선이나 염불, 주력 중에서 자기 근기에 맞게 열심히 수행하다보면 행복한 삶은 더욱 우리 가까이 다가온다.

중국 초나라 때 양유기는 화살로 200m에 있는 버드나무 잎을 맞추어 떨어뜨리는 당대 최고의 궁사였다. 그는 5일장이 설 때마다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자신의 솜씨를 자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제가 활 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겠소."

양유기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나그네 양반, 당대 최고의 궁사에게 그렇게 망언을 해도 되는 것이요"라고 핀잔을 줬다. 이에 나그네는 "당신이 매일 같이 활줄을 당기면 활대는 자꾸 굽어지고 활줄은 늘어져 어느 땐가 활줄이 끊어져 개망신을 당할 때가 분명 있을 것이요"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양유기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 이후로는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겸허하게 살아갔다고 한다.

우리네 속담에 '매사 불여 튼튼'이라고 했다. 인생사는 예기치 않는 난관이 많다. 항상 기도하고 복도 짓고 덕도 쌓으면서 살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